

치 사

우리 종단을 대표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은 6년여 동안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연구하여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특별전을 여러 차례 성황리에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불교미술을 주제로 하여, 사부대중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문화포교의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대표성보박물관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이 준비한 <인각사와 삼국유사> 특별전은 종단의 문화포교 역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뜻 깊은 전시입니다. <인각사와 삼국유사> 전시는 찬란한 불교문화를 품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이후 한국불교가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길을 '인각사'라는 한 사찰의 역사를 통해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불교문화를 전승해온 천년고찰의 숨결을 사부대중이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특별전은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보전寶典인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보각국사 일연스님과 『삼국유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연스님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가치를 지키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으며, 『삼국유사』는 고대의 정신문화유산을 현재의 우리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문화의 끈이 이번 특별전을 통해 대중들의 정신문화적 갈증을 흠뻑 적셔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물관장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귀중한 정보를 맡겨주신 국립박물관 및 기관, 각 사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